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75)

# 二卵棄干城

이란 기간성

달걀 두 개 때문에 간성을 버리네요.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나라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니 어떤 사람이 공직을 맡느냐가 바로 그 나라의 흥망 성쇠에 관계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공직자의 선정(選定)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근래에는 일정한 직위 이상의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공직자의 능력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공직 후보자가 말을 일과 그 사람의 능력을 세심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것이 중요해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한다. 생중계되는 공직자에 오를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질문하는 의원의 수준도 가능할 수 있다. 제대로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할 질문을 하는지 아니지를 볼 수 있다.

이를 몇 번 보면서 문득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자사(子思)가 위군(衛君)에게 위(衛)나라를 지킬 장군으로 구변(苟變)을 천거했던 고사(故事)가 생각났다. 자사는 공자의 손자이고 학문적으로는 공자, 증자, 자사, 맹자로 이어지는 학통(學統)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전국시대는 각국이 서로 먹느냐 먹히느냐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였고 그중에 특히 위(衛)는 나약한 소국(小國)이었으므로 어떤 장군을 채용하는가는 아주 중요하였다.

이 소국이 험한 시대를 견디려면 나라를 적으로부터 막고 지킬 간성(干城) 같은 장수가 필요하였다. 이때 자사가 위군(衛君) 신공(愼公)에게 구변을 추천하며 말하였다. '그의 재능은 500량(輛)의 전차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전차(戰車) 5백 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라면 요즈음 말로 하면 사단장을 넘어 군단장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는 말이다.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 하겠지만 위군은 '그가 그러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과거에 하급 관리였을 적에 백성의 달걀 두 개를 먹은 일이 있으니 채용할 수 없습니다.' 위군은 대단히 꼼꼼하게 구변을 검증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가 하급 관리 시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백성의 달걀 두 개를 먹은 것을 찾아내고 이것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달걀 두 개는 그리 큰 재산은 아니지만 이를 부당하게 먹은 것은 분명 흠집이다. 작은 흠집이라도 없으면서 유능하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달걀 두 개 먹은 것을 혹 10배로 배상하게 하여 그 흠집을 가려 주고 장군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요즈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공직 후보자의 작은 흠집을 지적하면서 이런 흠집이 있으니 공직에 임명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을 볼 때 문득 위군 신공의 말이 떠오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역사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채용되는 것을 시기심으로 없는 흠집도 만들려는 경우도 있었다. 남송대에 있었던 사건이다. 남송이 몽고군에게 압박받던 시절이었다. 이 시기에 남송을 지탱해 갔던 장수 가운데 명장 조규(趙葵)가 있었다. 조규는 유능한 장군이기는 하지만 조정에 끈을 대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때 가사도(賈似道)가 재상으로 정사를 틀어쥐고 있었다. 사실 가사도도 약주(鄂州)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몽고군과 대치하였던 사람이다. 몽고군이 압박하더니 드디어 가사도가 책임지고 있는 약주를 포위하였다. 위기에 몰린 가사도는 조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몽고군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세폐를 줄 것을 약속하면서 화의(和議)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제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운수가 좋았던지 몽고의 헌종이 죽는 바람에 몽고군은 포위를 풀고 떠났다.

남송으로서의 천행(天幸)이었는데, 가사도는 이를 마치 자기가 몽고군을 물리친 것처럼 보고서를 올렸다. 천운을 자기 능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를 모르는 송의 이종(理宗)은 가사도를 재조(再造)의 공로를 세웠다고 추켜세우고 재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가사도는 속임수로 재상이 된 것이니 자기보다 공로가 많은 사람이면 시기하여 내쫓기 시작했다. 조규도 그 가운데 하나여서 바로 마광조(馬光祖)로 조규 대신하여 책임자로 삼았다.

마광조도 평소 조규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던 터라 이를 기회로 삼아 조규를 골탕 먹이려고 무엇인가 이유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동원한 방법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물(官物)을 철저히 검사하여 하나라도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 했다. 그래서 조규의 행적을 이 잡듯 뒤졌지만 별다른 위법을 찾아내지 못하였다가 마지막에는 조규가 연등회 때 연등 비용을 지불한 것을 찾아냈다. 연등하는 비용은 큰 공익(公益) 행사에 사용한 것이지만 군사용은 아니라

는 이유로 문제 삼고,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시기가 만든 흠집이었다.

이 일의 처리를 맡은 왕립신(汪立信, 1201~1275)이 "바야흐로 간난(艱難)한 시기에 조공(趙公, 趙葵)은 업무에 다가가는 근로하였지만, 그러나 공(公)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를 주위 담으려고 합니다. 공이 어느 날 아침에 여기서 떠나면 뒤에 오는 사람이 다시 공이 한 짓을 본받는다면 좋겠습니까?" 너무 심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시기심으로 불탄 마광조는 왕립신을 쫓아냈고, 사방득(謝枋得, 1226~1289)에게 말했다. 원래 사방득도 조규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사방득은 개인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선무(宣撫, 趙葵)에게 누가 되게 할 수 없다."라고 자기 돈으로 일부를 매우고 모자라는 부분을 두고 재상인 가사도에게 편지를 썼다. "천금(千金)을 가지고 사목(徒木)할 사람을 모집하여 곧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의(信義)를 얻고 두 개의 달걀 때문에 간성(干城)을 버리는 데 어찌 이웃 나라에 소문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규의 처리를 두고 전국시대에 상앙(商鞅)이 장대 하나를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기면 천금을 주겠다고 광고하면서 조정이 신뢰를 얻었다는 고사와 앞에서 말한 위군(衛君)이 구변을 채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영터리 인사 검증을 경쟁국에서 안다면 얼마나 우리를 앞잡아 보이겠느냐는 말로 끝 내었다.

사방득의 말처럼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문회를 이웃 나라가 속속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달걀 두 개의 흠집으로 장군급을 버리려는 모습이 중계방송으로 전파되니 그 질문의 수준이 얼굴을 화끈하게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작은 흠집을 찾는 위군과 시기 속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흠집을 내려는 가사도와 마광조를 보는 듯하였다. 자사는 이런 못난 위군에게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아야 한다고 조용히 타 일렀고 사방득은 개인적으로 조규를 싫어해도 공정한 입장에서 대신 자기가 책임을 졌다. 국회의원에 자사의 말을 들려 줄 사람은 없는가? 또 사방득처럼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는가?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 관포지교(管鮑之交)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정이나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유래: 관중과 포숙아는 죽마고우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두 사람은 벼슬길에 올랐으나 본인의 아니게 적이 되었다. 제나라의 15대 군주 제환공이 왕이 되기 전에 두 형제가 왕위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규(糾)의 아우 소백(小白)은 형 규를 죽이고 새 군주가 되어 제환공이 되었다.

환공이 규의 측근이었던 관중을 죽이려 하자 포숙아(鮑叔牙)가 환공에게 진언했다. "관중의 재능은 신(臣)보다 몇 갑절 낫습니다. 제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으로도 충분합니다만 천하(天下)를 다스리려 한다면 관중(管仲)을 기용하셔야 합니다." 환공은 포숙아의 진언을 받아들여 관중을 대부(大夫)로 중용하고 정사를 맡겼다.

재상이 된 관중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마음껏 수완을 발휘해 환공으로 하여금 춘추(春秋)의 폐자(霸者)로 군림하게 했다.

성공한 후 관중은 포숙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회고(回顧)하고 있다. '내가 젊고 가난했을 때 포숙아와 함께 장사를 하면서 언제나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포숙아는 나에게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몇 번씩 벼슬에 나갔으나 그때마다 쫓겨났다. 그래도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흉보지 않았다.'

내게 아직 운이 안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온 적도 있으나 그는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높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공자 규(紉)가 후계자 싸움에서 패하여 동료 소홀은 싸움에서 죽고 나는 묶이는 치욕을 당했지만 그는 나를 염치 없다고 비웃지 않았다. 내가 작은 일에 부끄러워 하기 보다 공명(功名)을 천하에 알리지 못함을 부끄러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父母)이지만 나를 진정 알아준 사람은 포숙아다.

## 괄목상대(刮目相對)

비밀 팔. 눈 목. 서로 상. 마주할 때.

직역하면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마주하다.

유래: 삼국지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이다. 원문은 괄목상대(刮目相待)이지만 한국에서는 괄목상대(刮目相對)가, 중국에서는 괄목상간(刮目相看)이 주로 쓰인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대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재주가 감쪽 놀랄 만큼 늘었음을 말한다.

삼국시대 동오에서 과거에 비해 학식이 매우 해박해진 여몽의 모습에 노숙이 크게 놀라자 여몽이 "선비란 사흘만 떨어져도 눈을 비비며 다시 대해야 합니다"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 교각살우(矯角殺牛)

바로잡을 교. 뿔 각. 죽일 살. 소 우.

뜻: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치거나 망침

유래: 예전에 중국에서 종(鐘)을 처음 만들 때 뿔이 곧게 나 있고 잘생긴 소의 피를 중에 바르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한 농부가 제사에 사용할 소의 뿔이 휘어져 있어 균형있게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뿔이 뿌리째 빠져 소가 죽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 2024년도 고려대전대제 봉행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총재 성낙훈)에서는 10월 15일 11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330-102 (성동리 684)에서 2024년도 고려대전대제를 참제원 400여 명, 50여 개 성씨와 102씨족의 예순(齋孫)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고려통일대전 전당에는 고려 태조를 비롯한 역대 열왕(列王) 33위, 충헌공열사(忠賢功烈士) 263위의 존령(尊靈)을 배향하고 있다. 안동권문에는 시조 태사공을 비롯하여 추밀공과 국제공(菊齋公) 권보(權溥), 정헌공(正獻公) 권재(權載, 王熙), 밀직공(密直公) 권중귀(權重貴), 정승공(政丞公) 권상좌(權上佐)와 검교공과 사복재(思復齋) 권정(權定)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사전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귀빈 소개 및 인사말, 분헌관 및 내빈 소개, 추모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제례는 영신례(迎神禮), 신과례(晨樛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飲福禮), 철변두(撤邊豆), 송신(送神), 망료례(望燎禮)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전대제는 우관준 고려역사선양회 전례위원장의 집례로 초헌관에 우승기 단양우씨대종회 회장, 아헌관 정철우 서산정씨대종회 회장, 종헌관 이종문 예안이씨 전 대종회장, 동령왕위헌관 조규덕 방촌영묘 도유사, 서열왕위헌

관 정호진 자운서원 전 원장 등으로 분장하여 헌작하였다. 또한 추모문 낭독관 정대재 고려역사선양회 전례위원, 태축(太祝) 정대재 고려역사선양회 전례위원장, 집례 해설에는 이정례 성균관 강사가 맡았다.

이 자리에는 권영애(추밀공과 정헌공 종중, 34世)씨가 남편 정동벽 서산정씨 대종회 사무국장과 함께 참석하여 안동 권문 선조들의 위패에 참배했다.

권행원 편집국장

## 광고, 독자투고 안내

안동권씨 정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입니다. 정보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기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광고, 독자투고 연락처

▶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정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033237-04-006941(국민)

## 안동권씨 대종회

## 안동권씨 정보를 구독합시다

안동권씨 정보를 구독합시다!

안동권씨 정보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정보는 1974년 12월 1일 창간된 이후 50여 년 동안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로서 안동권씨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인문정신과 학문적 유산, 후학들의 지혜를 모아 매월 1일 자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정보 1부 구독(1년 3만원)과 정보 발전 기금은 대종회의 재정자립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종회 사무처 : 02-2695-2483

▶ 이메일 주소 : andongkwonmun@daum.net

▶ 예금계좌 : 국민은행 계좌(033237-04-006772)

## 안동권씨 대종회